

전남도, 글로벌 기후외교 무대 중심 선다

20~25일 여수서 유엔 기후주간·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최 해외 대표단 등 1만4000여명 방문·200억원 경제효과 기대

전남도는 오는 20~25일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UNFCCC Climate Week 3 Yeosu)' 및 '녹색대전환 국제주간(GX-Week)'을 개최, 글로벌 기후외교 무대를 밟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당사국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국제기후 행사다. 이번 기후주간은 여수 개최는 지속적인 외교 노력의 결과로, COP30에서 개최 당위

성을 설명해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독일 본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을 방문하는 등 개최 노력을 꾸준히 펼친 결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했다. 녹색대전환 국제주간도 동시에 열린다. 행사 공식 주제는 '녹색대전환, 모두의 성장의 길'로, 고위급 에너지전환 정책 대화, 인공지능 전략 대화 등이 진행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기존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형으로 확대한다.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주요국 기후 분야 장관, 국제기구 고위급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회식'을 시작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회의 등을 진행한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대전, 이클레이 세계 기후도시포럼 등 지역 연계행사와 자원순환가게, 친환경 플라마켓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행사장 모든 구역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친환경 서플라이를 운영하는 등 '그린 컨벤션' 방식으로 추진한다. 종이 인쇄물도 줄이고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는 '페이퍼 리스' 환경도 구축한다. 전남도는 행사 기간 해외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1000여명을 포함해 약 1만 4000명이 여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 20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전남은 이제 기후 논의 참여 단계를 넘어 국제의제를 주도하는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친환경 운영과 체계적 지원으로 전남의 역량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이 녹색대전환의 글로벌 표준 국가로 도약하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18@gwangnam.co.kr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16일 오후 시청 충무시실에서 열린 집중안전점검 최초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 안전도시 조성 총력 노후시설 등 590곳 예방조치

광주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6월19일까지 60일 동안 '2026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위험·기반시설 59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중심으로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시는 어린이·노인 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 민생 밀집 생활기반시설을 중점 점검 분야로 선정했다. 집중점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한다.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 장비와 인력을 현장 중심의 정밀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16일 시청 충무시실에서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집중안전점검 최초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산하 공사·공단 등 27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점검계획과 기관별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협업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광주시는 점검기간 부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확인점검을 병행해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점검 종료 후인 6월 이후에는 자치구별 평가를 실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고광완 시 행정부시장은 "선제적인 안전 점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대책"이라며 "안전취약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김영록 지사, 민주당 '깜깜이 경선' 제도개선 촉구

오늘 지사직 복귀...민생경제·기업유치 혼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영록 전남지사가 16일 당의 경선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빙의 승부일수록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지지자들이 결과에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깜깜이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그는 ARS 조사나 설계 방식, 조사 대상, 조사 기관, 심지어 권리당원 투표자수조차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민주주의 원칙인 투명성, 공정성,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캠프를 통해 중앙당에 확인한 결과, 여론조사 과정에서 설계 오류로 2308명에 대해 '전남' 거주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 3번의 투표 과정에서 결과를 모두 비공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정당의 경선은 공개성,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경선 결과를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민형배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앞으로 우리 특별시가 잘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해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는 17일 도시사이에 복귀해 중동 정계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준비 및 기업 투자유치 등 산적인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 3번의 투표 과정에서 결과를 모두 비공개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면서 "정당의 경선은 공개성, 공정성,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지금이라도 경선 결과를 소상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민형배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앞으로 우리 특별시가 잘되도록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해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는 17일 도시사이에 복귀해 중동 정계에 따른 민생경제 안정화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 준비 및 기업 투자유치 등 산적인 현안을 챙길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강창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오

기후위기대응위원장 이창훈 진실화해위 상임위원 김귀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임명했다. 지난 1월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던 자리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강 신임 수석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일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주일대사로 임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김귀옥 한성대 소양핵심교



양향부 교수가 발탁됐다. 이 수석은 "한국 기술사학회 회장을 역임한 역사 사회학자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이산가족 문제 등 약자에 대한 국가책력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해 온 만큼 과거사 규명에 있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가 위

광주서 지구 지키기 시민행동 전개

폭염과 한파, 가뭄과 집중호우 등이 빈번한 기후위기 시대, 지구를 지키기 위한 행동들이 광주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제56주년 지구의 날' (4월22일)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를 '기후변화주간'으로 운영,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기후변화주간은 시민의 기후 위기 인식을 높이고 생활 속 탄소중립

등이 진행되며, 자원순환·자연환경·에너지·녹색건강·녹색교통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된 23개 체험 부스가 시민들을 맞이한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가져오면 물비누를 나눠주는 '소분소분 빚고올 기후정터',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클로버 에코체크', 집에서 잡자는 텀블러를 가져와 현장에서 재사용하는 '잡자는 텀블러를 깨워라' 등을 운영

시, 20~24일 기후변화주간 운영 행사 다채 내일 '지구의 날' 기념식...22일 오후 8시 소등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의 날' 기념식은 오는 18일 12시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광주시역 100여개 환경단체와 관계기관,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퍼포먼스, 공연 등이 이어진다. 올해의 주제는 '함께 걷고 함께 지키는 우리의 발걸음'으로, 시민 모두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지키는 큰 힘이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의 의미를 더할 부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어린이 그림대회와 자전거 대행진, 지구를 지키는 지구RUN(걷기대회)

하며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제안한다. '지구의 날' 당일인 22일 오후 8시에는 '전국 동시 소등 행사'가 10분 동안 실시된다. 광주시청과 각 구청 등 공공기관을 비롯해 온도낮추기 우수 아파트 조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파트 등 100여곳이 참여해 불을 끄고 지구에 휴식을 선사할 예정이다. 5개 자치구와 관계기관에서는 탄소중립실천 캠페인, 찾아가는 평두메슈지 생태교실 등 지역 특색에 맞춘 개별 행사를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 열기를 이어간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교통공사, 신규직원 24명 공개 채용

24일부터 30일까지 접수

광주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서비스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직원 24명을 공개 채용한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사무 5명 △전기 4명 △신호 2명 △통신 2명 △전차 1명 △승무 4명 △기계 1명 등 19명이며, 공무원직은 △미화 3명 △시설(조정) 1명 △정비 1명 등 5명이다. 사무와 전기 분야에는 각 1명씩 장애인 전형도 포함해 사회 형평 채용을 병행한

다. 지원 자격은 성별, 학력, 경력에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광주시 3년 이상 거주 등 거주지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직은 공인 어학성적 기준점수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승무', '미화', '정비' 등 일부 직렬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자격요건이 요구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 통합채용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s://gwangju.ai-recruit.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1면 '여수 삼박람회'서 계속

전남도는 이날 총리 방문에 맞춰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행사장 조성공사는 전체 공정을 78%를 보이고 있으며, 랜드마크 45%, 열린 문화공간 53%, 전시관 조성 36% 수준으로 주요 시설이 일정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주제성과 8개 전시관 내부 콘텐츠는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본행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시 콘텐츠는 '섬의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스토리라인을 중심으로 미디어아트와 체험형 요소를 결합한 몰입형 표이자 시장을 역임했다.
이성오 기자

도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29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참가를 확정했으며, 조직위는 국내외 300만명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행사장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 일원 환경정비와 청결 관리, 편의시설 확충 등 손님맞이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숙박·음식 분야에서는 지정업소 운영과 위생·가격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고, 교통·주차·서비스 운영 개선으로 관람객 불편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남은 기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안전하고 완성도 높은 국제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